

영국,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 시행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스테러, 면봉 공급 금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 탓에 해당 법안 시행 일시 2020년 10월로 연기

영국의 환경 농림식품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 스테러 및 면봉의 사용 금지를 승인하고 2020년 4월부터 해당 품목의 공급을 금지할 계획을 설정함. 해당 법안은 일반 대중에게 플라스틱 빨대, 스테러, 면봉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나 의료상의 이유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 일회용 빨대 사용이 허용됨. 등록된 약국, 온라인 등의 판매 채널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판매할 수 있으며 음식점, 카페 등의 시설에서는 빨대를 요청할 경우 법적 제재 없이 빨대를 제공할 수 있음. 면봉은 의료적으로 필요할 경우, 범죄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 과학 연구, 조사 및 법의학 목적에서의 사용은 예외임.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가 미친 악영향 탓에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시행 일시를 2020년 10월로 연기함